

# 장치산업으로서의 발돋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고지업계 기계화 필요

이종한/서울고지협동조합 상무

“고지(古紙) 업계의 권익보호와 고지의 회수율을 증대하여 국가경제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1986년 9월16일 서울시장인가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고지협동조합의 창립목적은 이렇게 피력한 이종한 상무는 예비역 장교로서 1974년 정부가 폐지사업대행을 재향군인회에 위탁했을때부터 종이와 생활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이종한 상무는 9년동안 조합을 이끌어 오면서 조합의 활성화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서울고지협동조합의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조합은 제지원료인 고지를 분별·수거해 공장에 납품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여 조합원들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대림자원의 임혜수 현 이사를 필두로 서울시내에 버려져 있는 고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겠다는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약 4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지업은 장치산업이지만 자본금 1억미만인 고지업계는 여러모로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제지업계의 일방적인 조치에 끌려 가야 하는 한계성이 있고, 정부의 고지업계에 대한 배려가 미비하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제지업계의 인식도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고지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이유는 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지 또한 충분히 활용만 한다면 수입고지 못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정부에 정책건의와 제지업계에 올바른 요구사항-유통질서 개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받아들여 질지는.



▲ 고지업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이종한 상무

## 조합의 향후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

고지는 부피가 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물류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는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지업계의 기계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량상 40%, 업체중 60% 정도가 기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서히 저의 업계도 영세성을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1991년도 저희 조합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공동판매를 위해 경원제지에 납품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되어 부도가나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변제를 했습니다.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요. 이런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 지금껏 서울고지협동조합이 있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지조합이 많은 어려움에 있다고 하나 이 사장 이하 전 조합원들이 예전처럼 힘을 합친다면 아무 문제가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은 비판 바랍니다. ☞

변준섭 기자